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206-362-2278 | 연령화:425-225-6786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홍광철 세례자 요한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하느님 나라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를 밭에 숨겨진 보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13,44)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은 그 보물의 가치를 인정하고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아마도 그가 느끼기에 그 보물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자체를 가지고 논하면 결국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남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그 보물의 소유권을 그 밭주인이 먼저 주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모르는 척 그 밭을 산다는 것도 양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의 진리를 생활함으로써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써보기 전에는 많은 이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컴퓨터를 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타자기를 쓰고 있었는데 도무지 컴퓨터를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 컴퓨터의 가치를 모르고 타자기를 사용했을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너무 좋고, 삶에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도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도 하고, 기쁘게 봉사도 하고, 형제자매들과도 신앙 안에서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들과 기도하면서 더욱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를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13,44)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밭에서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밭을 열심히 일구었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일구어서 양식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그 양식을 충분히 사고도 남은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유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 밭을 일구며 땀을 흘리다보니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7,21)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할 때, “아!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아! 주님은 이렇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온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 삶 안에서 내가 발견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발견한 하느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사 안내		성사 안내		학교	
주일미사	(토요일 저녁) 오후 7:30 (주일) 오전 8:00 / 10:00 오전 11:30 (학생) 오후 6:00 (청년)	환자 봉성체	매달 첫 목요일 오전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00
월	오전 10:00	병자성사	구역장을 통해 신청	YG(고등부)	(주일) 오전 10:00
수/목/금/토	오전 10:00	성체강복	매달 첫 목요일 저녁미사 후	한국학교	(금) 오후 7:00 (토) 오전 9:30
화/수/목/금	오후 7:30	예비신자교육	(목) 오전 10:00 미사 후 (주일) 오전 8:20	안드레아 문화대학	(주일) 오후 1:00-4:00

내가 맺어야 하는 열매 하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구원을 체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고,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며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사도는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면 나에게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꿩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1코린13,1-3)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기쁘게 미사에 참여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살아가며 보이지 않게 기도와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온 생애는 사랑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의 삶을 온 삶으로 보여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

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느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사랑할 때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성당에 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기쁘게 맞이해 준 그 형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한 자매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자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고, 나를 위해 차를 준비해주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형제자매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보를 나눠 주고, 거룩한 전례를 준비해 주며, 아름다운 장소를 마련해 주는 형제자매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 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하느님의 귀한 자녀로 바라보며,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느님의 선물이 되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쁘게 해 줍시다. 그렇게 하느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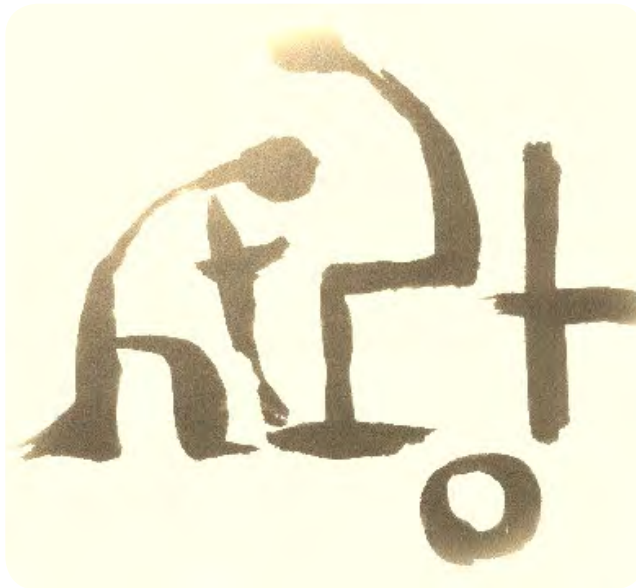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보입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가끔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알고 있을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러한 성찰은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더욱 온유하고,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느님은 아들 예수님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십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마태11,27)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온전하게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완전히 인식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은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보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된 가장 분명한 사실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드님까지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는 나는 그 사랑에 응답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뽑으시어 하느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뽑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알게 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여 하느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가톨릭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언제나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알고 있는 만큼 변해야 하며, 그 변화된 의로운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목지표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들”

전신자 실천사항

- 첫째, 하루 한 번 감사드리기
- 둘째, 행동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찾기
- 셋째, 내가 먼저 인사하기

공동체 소식

◆ 세례 성사 안내

• 8월 13일 10시 미사 중 성모승천 대축일이 평일인 관계로 세례 성사 일정을 13일 주일로 변경합니다. 또 한 유아세례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세례성사를 8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안내

• 미사: 오후 7:30 8월 15일은 성모승천 대축일로 한국교회는 의무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만드

시 이날 미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Summer Camp

• 날짜: 8/18(금) ~ 8/20(주일) • 주제: 하늘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4,16)
• 장소: Gwinwood Retreat
• 참가비: \$100 • 대상: 3학년 ~ 12학년

◆ 2017년도 본당 골프 대회

• 일시: 2017.8.26 오후 12:30
• 장소: Eaglemont Golf Course

4800 Eaglemont Dr
Mt.Vernon, WA 98274

• 문의: 황길수 미카엘 (사목회 총무)
425.773.2991

◆ ME 첫 주말

• 날짜: 2017년 9월 8일(금) ~ 10일(주일) 2박 3일 여정으로 부부의 아름다운 시간 속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접수: 본당 ME 대표부부 박재만 마르띠노/ 화영 크리스티나 (206)753-9089

자주 하는 신앙인들의 질문

함께 세례를 받고 기도생활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을 등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아닌 척 하지만 맏고 있는 열매가 훤히 보이니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자매가 허물없이 대화하는 이에게 이렇게 마음을 터놓았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가 안돼요. 저 사람이 봉사한다고 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다 알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니 성당 안다니는 친구들도 ‘성당 참 사람 없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당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니!’라고 말한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성당은 기쁘게 받아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켰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도와줍시다. 그리고 어쨌든 나 때문에 고민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보고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앙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임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당에는 천사들만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출발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당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 오는 것이지 이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교만한 눈빛을 보내고 “네가 뭐 하러 이곳에 왔어!”라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말 한 마디 때문에 괴로워하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반응한 그 형제자매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다가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겸손하게 다가가기, 마음에 담긴 교만의 칼을 내려놓기를, 좀 더 양보하면서 살아가기를,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기를..., 그리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인이고, 겸손한 신앙인이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고, 잘못을 하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신앙인입니다.”라는 생각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하느님께서서는...